

# 예술·문화로 활력 찾는다

### 장수군 수분마을, '전북형 마을문화프로젝트' 공모사업 선정

장수군 수분마을이 전북특별자치도 문화관광재단이 주관하는 '전북형 마을문화프로젝트'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전북형 마을문화프로젝트'는 인구 소멸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기록하고 이를 문화와 예술작품으로 재탄생 시키는 등 인구소멸지역을 문화적 재생 모델로 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선정 시 마을의 이야기를 구술·채록해 시, 소설, 동화 등 문화작품으로 재구성한다.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장수군은 수분마을 이야기를 기반으로 한 주민들의 삶과 기억을 문화로 기록하고 나누는 다양한 활동을 펼쳐 지역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경제적 파급효과를 창출할 계획이다.

수분마을은 지난해 11월 뜬봉샘과 함께 환경부로부터 국가생태관광지로 지정되며 생태·역사·문화적 가치를 대외적으로 인정받았다.

특히 급강의 발원지인 뜬봉샘이 위치해 '뜬봉샘이 마을'로도 불리는 수분마을은 국가등록문화재 제189호인 수분공소를 간직한 유서 깊은 마을로 친화의 자연환경과 근대문화유산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 독특한 역사·문



장수군 수분마을이 전북특별자치도 문화관광재단이 주관하는 '전북형 마을문화프로젝트'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화 자원을 바탕으로 이번 공모사업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전북특별자치도 문화관광재단 관계자는 "수분마을은 주민과 자연과 역사가 함께 살아온 삶의 이야기가 풍부한 공동체로 일상의 언어와 감성이 문화으로 표현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최훈식 장수군수는 "이번 공모사업

을 통해서 뜬봉샘에서 끊임없이 흘러온 마을의 이야기를 주민 스스로 글로 남기는 뜻깊은 작업이 될 것이다"며 "문화를 매개로 마을의 자긍심을 높이고 수분마을 문화의 과거와 현재, 미래의 가치를 확산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 “군유지 관리 방식 전환해야”

### 문은영 무주군의회 행정복지위원장, 5분 발언 통해 제안

문은영 무주군의회 행정복지위원장(사진)이 5분 발언을 통해 무주군의 군유지 관리 방안을 제안했다.

문은영 위원장은 23일 열린 제317회 무주군의회 제차 회의에서 '군유지 관리 및 매각 방안 제안' 5분 발언을 통해 군유지 관리 방식을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문은영 위원장은 "현재 무주군이 대부·사용허가를 통해 관리하는 군유지는 총 366건에 달하지만 수입은 6,600만원에 불과해 군 재정에 기여하는 바가 제한적이고 행정적 관리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발언했다.



문은영 위원장은 군유지 매각과 관련해 △군유지 매각 추진 전 해당 군유지와 연결한 소유주 및 마을에 토지매입 의사 타진 △군유지 검색시스템 도입 △재산매각에 대한 단기계획과 중장기계획 수립 및 시행과 매각 매각계획 우선 수립 등을 제안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 무주군, 카카오톡 활용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시행

무주군이 카카오톡을 활용한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시행한다.

새롭게 도입된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는 모바일 기기를 통해 체납 내역을 확인하고 즉시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납세 편의는 물론, 효율적인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무주군에 따르면 기존에 시행하던 세외수입 체납 고지서 발부 및 독려

전화는 납세자의 주소 이전, 또는 휴대전화 번호 변경 시 안내에 어려움이 따랐다.

특히 주정차 위반 과태료, 검사 지연 과태료,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과태료 등 차량 관련 과태료의 경우는 납세자 주소지 무주군 이외의 지역인 경우가 많아 징수에 어려움이 많았다.

김선규 무주군청 재무과장은 "모바

일 전자고지 시스템 도입으로 보다 신속·정확한 안내, 편리한 납부가 가능해졌다"라며 "카카오톡을 이용하지 않거나 모바일 인증서 설치에 익숙하지 않은 정보 취약계층을 위해 기존 우편 고지서 발송도 병행하는 등 세심한 징수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시행을 통해 세외수입 징수율을 높이고, 납세자 중심의 행정 서비스를 정착시켜 더욱 투명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군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는 23일부터 오는 7월 11일까지 3주간 진행되는 2025년 귀농산촌 청년캠프 '꿀벌활동단'을 시작했다.

## 청년캠프 '꿀벌활동단' 시작

### 진안군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 농촌사회 참여·관계형성 지원

진안군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는 23일부터 오는 7월 11일까지 3주간 진행되는 2025년 귀농산촌 청년캠프 '꿀벌활동단'을 시작했다.

'꿀벌활동단'은 예비 귀농·귀촌 청년들이 자원활동을 통해 농촌사회 참여 역량을 높이고, 지역 주민들과의 교류를 통해 진안군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캠프에는 경기, 서울, 부산 등 전국 각지에서 모인 귀농·귀촌에 관심이 많은 도시 청년 8명이 참여하며, 3주 동안 총 35개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캠프 참가자들은 진안군의 역사, 인문학, 문화, 시설 체험 및 교육을 통해 귀촌 정착에 필요한 기본적인 도움을 받게 된다. 또한, 진안군 마을 및 생태 탐방을 통해 지역 문화와 생활 환경을 이해하고, 청년 농업 탐방 및 농촌 일손 돕기를 통해 농촌 청년들과 교감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특히 제과제빵 기술을 배우고 이를 활용해 지역 아이들과 함께하는 체험

시간을 가질 예정으로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요리 체험을 통해 지역 사회에 기여하고 소통하는 기회도 마련된다. 전 과정을 수료하면 농림축산식품부 귀농귀촌 교육 80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다.

23일 입주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꿀벌활동단 발대식, 제과제빵 수업 및 체험, 농가 일손 돕기, 생태 숲 탐방, 로컬푸드 탐방, 요리 수업, 그리고 봉사단 결과보고회 및 파티 등으로 다채롭게 구성돼 있으며, 7월 11일 해단식 및 수료식을 끝으로 마무리된다.

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 관계자는 "꿀벌활동단은 청년들이 별처럼 부지런히 지역에 참여하고 꿀처럼 달콤한 관계를 맺는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며 "이번 캠프가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청년들이 진안의 농촌 사회를 깊이 이해하고, 지역 주민들과 유대감을 형성하며 성공적으로 정착하는 데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 장수소방서, 집중호우 대비 차량 침수 시 행동요령 홍보

장수소방서(서장 한동규)는 최근 국지성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피해 사례가 늘어나면서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차량 침수 시 행동요령'에 대한 집중 홍보에 나섰다.

집중호우로 인한 차량 침수시 행동요령은 △지하차도, 지하주차장 등 침수 우려 지역은 절대 진입 금지 △기상상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위험 지역은 우회 이동 △타이어 높이의 2/3 이상 잠기기 전 안전한 곳으로 차량이동 △차량 안으로 물이 들어오고 있는 데 안열릴 경우 어느정도 물이 차오를 때까지 대기(차량 내·외부의 수위차가 좁혀지면 문이열림) 만약, 침수로 창문이 안열린다면 단단한 물체로 모서리를 깨고 탈출(비상용 망치, 목판



침대 지지봉 등) △탈출 후 차량 지붕이나 높은곳에 올라가 119신고 및 구조요청 등이 있다.

한동규 소방서장은 "차량 침수 사고는 대부분 예고 없이 갑작스럽게 발생하기 때문에 정확한 행동요령 숙지가 매우 중요하다"며 "주민들에게는 사전에 대해 방법을 숙지하고 안전 수칙을 실천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 지역 소식통

### 진안군 마이학당, 뇌과학자 장동선 박사 초청 강연 성료

20년 전통을 자랑하는 진안군 마이학당이 지난 20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진안군청 강당에서 세계적인 뇌과학자이자 60만 유튜브로 잘 알려진 장동선 박사를 초청해 강연을 개최했다.

"나는 세상을 어떻게 바꾸는가"를 주제로 열린 이번 강연에는 진안군민 200여 명이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장 박사는 뇌과학의 시각으로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이 인간의 감정, 사고방식, 사회적 소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쉽고 흥미롭게 풀어내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이날 강연에서는 장동선 박사의 피아노 연주가 더해져, 과학과 예술을 접목한 특별한 시간이 마련됐다. 감정과 이성을 잇는 이색적인 구성은 군민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며 과학에 대한 거리감을 줄이는 계기가 됐다.

한편 군 교육지원팀은 마이학당을 새롭게 활성화하기 위해 연간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스타 강사 초청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오는 8월 12일에는 최지영 작가의 '그림으로 보는 화가의 삶과 작품', 10월 27일에는 설채현 수사의 '대한민국 수사사, 동물 행동수정 트레이너' 강연이 예정돼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

### 장수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필수 의무교육 실시

장수군은 지난 21일 한누리전당 소공연장에서 2025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필수 의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237명을 대상으로 근로자들이 한국 사회에 빠르게 적응하기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교육은 총 5차시로 구성했으며 1~4차시는 법무부에서 과업된 전문 강사가 진행했고 마지막 5차시는 장수군 자체교육으로 병행됐다.

주요 교육 내용은 대한민국의 기초 법질서, 범죄 예방, 농작업 안전 수칙, 근로 시 유의사항 등 계절 근로자들이 반드시 숙지해야 할 기본적인 사항이다.

/장수=고관호 기자

## Here is a to Good a Pension

무주별빛카라반&팬션의 모토는 "머무는 모든이들을 즐겁게"입니다. 모토에 맞게 찾아주시는 고객분들에게 즐거운 기억을 남겨드리는데 제1원칙입니다. 보기만해도 시원한 구천동계곡에서 사랑하는 가족, 연인 친구들과 지친 일상을 떠나 자연과함께해보세요.



## 무주 별빛 카라반&팬션

주소: 전북 무주군 설천면 백련사길 2-29(삼공리 518)  
전화번호: 010-9433-0696(대표 박태욱), 010-9408-3582(오용선), 063-322-6668